

	보 도 자 료		• 미래창조 금융
	배포시부터 보도 가능		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	
책 임 자	최용호 과장(2156-9750)	담 당 자	윤동욱 사무관(2156-9671) 오형록 사무관(2156-9751)
배 포 일	2015. 6. 8.(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6매

제목 : 금융위원장, KB국민은행 기술금융 우수지점 방문 “기술금융, 우리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”

- 시중은행 중 기술신용대출 실적이 가장 큰 국민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실적 1위 지점인 구로 종합금융센터 방문
- 금융위원장은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「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」 방안에 대해 설명
 - (기술신용대출 개선) ①기업지원의 질적 효과를 제고하고, ②기술력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며, ③은행의 기술금융 역량을 강화
 - (기술기반 투자 확대)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 기술과 같은 혁신기술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

I. 방문 개요

-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'15.6.8.(월), 시중은행 중 기술신용대출 실적이 가장 높은 KB국민은행의 실적 1위 지점인 구로 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
- * 국민은행 기술신용대출 규모 : 4.3조원(기술신용대출 공급액 25.8조원 중 16.6%로서 시중은행 중 1위, 전체 은행 중 기업은행(6.3조원, 24.5%)에 이어 2위)
- 기술금융 지원 우수사례 및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애로·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
- 금융위원회가 기술금융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마련한 「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」 방안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

II.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

□ 금융위원장은 격려 발언을 통해 기술신용대출 확대에 힘써온 은행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

○ 기술금융의 효과를 중소기업과 은행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간 기술신용대출에 대해 제기된 주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

<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등 “무늬만 기술금융” 의 문제 >

□ 금융위원장은 “기술신용대출이란 여신심사시 “신용”과 함께 그간 소외되었던 “기술”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 거래기업도 기술력이 있는 경우 기술신용대출의 대상이 된다”고 발언

□ 다만, “일반 중기대출로 가능한 기존 거래기업의 단순 대환, 만기연장도 기술신용대출로 실시되는 경우가 있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므로

① 형식적인 기술력 심사 가능성이 높은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단순 대환, 만기연장은 기술금융 실적 평가에서 제외하고

② 은행 심사자의 기업여신 심사의견 작성시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기반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겠다”고 밝힘

< 기술신용대출 취급에 따른 은행부실 확대 우려 >

□ 또한, “기술신용대출은 제대로 시행하면 은행 건전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, 그간 은행이 대출심사시 기업의 재무정보만 보았다면

○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기술정보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실제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

○ “기술금융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, 현재 은행별 기술신용대출의 연체율은 0.02%에서 0.03%로 극히 미약한 수준”이라고 언급

- 다만, “기술신용대출의 증가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
- 기술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에 정기적인 모니터링, 리스크 분석, 경영진 보고체계 수립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계획”이라고 밝힘

< 기술금융에 대한 중단 우려 >

- 금융위원장은 지난 제6차 금요회(5.29)에 이어 다시 한번 “기술금융이 중단되는 일을 절대 없을 것”이라고 강조하며
- “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은 기술이 우수한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던 과거 정책과 달리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은행 여신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것으로서
- 은행도 기술금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금융 정착을 위한 전략을 스스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”이라고 주문하고
- “앞으로 「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」을 수립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은행이 자체적인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”이라고 밝힘

< 「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」 방안 발표 >

- 금융위원장은 “기술신용대출 개선과 기술기반 투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「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」 방안을 금일 발표할 계획”이라며
- “은행 임직원 여러분들이 ‘기술금융 활성화’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만큼, 금융당국도 기술 금융 정착을 위해 매진하겠다”고 각오를 밝힘

- 또한 “앞으로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개선과 함께 지식재산권(IP)평가 기반 금융 확대,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등을 통해
 - 기후변화기술(“Clean-tech”) 금융과 같이 보다 혁신적인 기술(Invention-tech)에 대한 금융지원도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”이라고 밝힘

Ⅲ. 향후 계획

- 금융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비롯하여 금일 발표한 「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」 방안의 체계적인 추진 및 홍보를 통해
 -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금융 시스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금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애로사항은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
- 앞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술금융 우수지점 등 일선 금융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할 계획

<KB국민은행 기술금융 우수지점 방문 개요>

- ◇ (일시) '15.6.8(월) 10:10 ~ 11:15
- ◇ (참석) 금융위원장, 국민은행장, 금융위 금융정책국장, KED 관계자 등
- ◇ (장소) KB국민은행 구로동 종합금융센터
 - KB국민은행 내 기술금융 실적 1위 지점으로 지난 10개월여간 총 31건, 406억원 규모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실시
 - * (순수 신용대출) 11건 70억원 (지점 전체 TCB 대출의 건수 35.5%, 금액 17.2% 수준)
 - * (창업기업 지원) 8건 21억원, (지점 전체 TCB 대출의 건수 25.8%, 금액 5.2% 수준)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가. 기업명 : (주)아이원시스템

☐ 기업개요

소 재 지	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	설립일자	2008.4.10
주요 생산품목	통합관제시스템 설계 및 설치	종업원수	9명
주요 매출처	에스원, 나라컨트롤 등	대 표	손 정 호

☐ 재무현황('14년 결산기준)

(단위 : 백만원)

매 출 액	총 자 산	당기순이익
4,826	3,130	513

☐ 기술금융 지원현황(2015년 5월 기준)

(단위 : 백만원)

기보 보증부	온렌딩	지점 자율
-	-	300

☐ 지원 내용

(지원 개요)

- 당사는 2008.4월 통합관제시스템 설계,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외감 중소 기업으로
- 2014년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매출액 전년대비 18%감소한 가운데,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수주 활동 등으로 2015.3월 주거래처인 (주)에스원과 시스템설계 및 설치 계약 완료, 선투입비 등 일시적 운전자금 부족 발생
- TCB 보고서상 기술 개발 능력과 기술의 완성도 투자대비 회수가능성을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규여신 3억원 지원 완료함.

(기술금융 효과)

- TCB기술평가를 통해 당행 기술금융 특화상품(KB기술창조 우대대출)을 신용여신 지원함으로써, 당사 영업활성화에 기여 함.

나. 기업명 : (주)보령장갑

☐ 기업개요

소 재 지	충남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320-4	설립일자	2012.8.23
주요 생산품목	산업용 면장갑	종업원수	170명
주요 매출처	평화장갑, 송학글러브	대 표	최현규

☐ 재무현황('14년 결산기준)

(단위 : 백만원)

매출액	총자산	당기순이익
13,942	8,901	564

☐ 기술금융 지원현황(2015년 5월 기준)

(단위 : 백만원)

기보 보증부	온렌딩	지점 자율
-	-	1,088

☐ 지원 내용

(지원 개요)

- 동사 2012.8월 작업용 면장갑 제조 목적으로 설립되어 우수한 작업용 코팅장갑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비외감 중소기업임.
- 판매성수기(6 ~ 8월)를 대비한 생산 확대에 따른 일시적인 운전자금 부족 발생하였고, 다소 미흡한 재무안정성으로 인해 금융기관 추가 차입여력이 충분치 않았으나,
- TCB 보고서상 경영주 지식과 경험, 판매처의 다양성과 안정성, 기술의 완성도와 인지도 등을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고
- 은행 자체평가에서도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채무상환능력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 지원함.

(기술금융 효과)

- 일시적인 자금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당행 기술금융 특화상품(KB기술창조 우대대출)을 활용하여 신용여신 지원함으로써 영업 안정화에 기여함.